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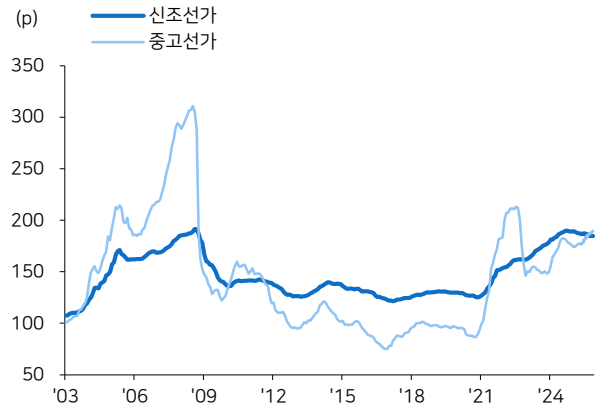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5. 11. 20 (목)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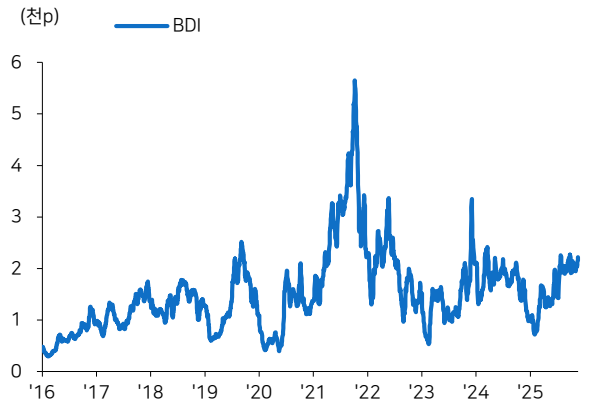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4.9p (+0.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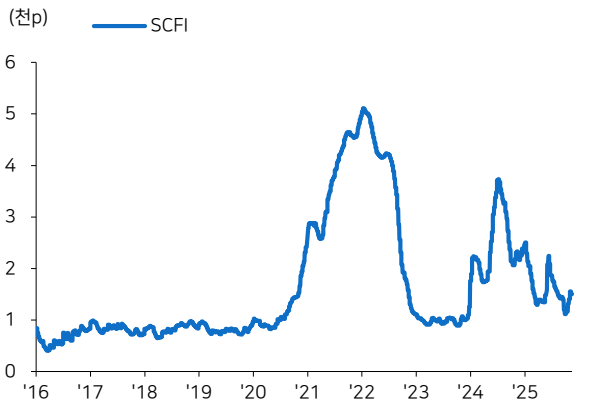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79.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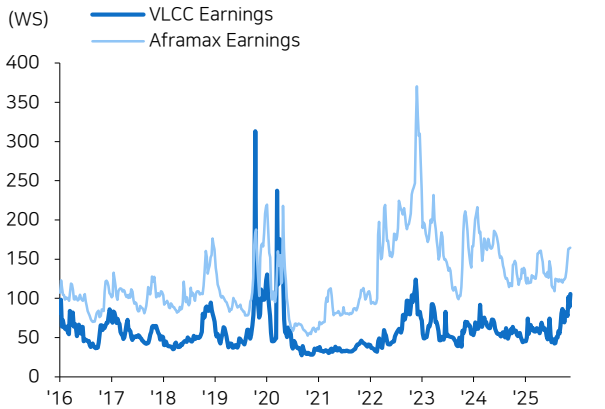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216.0p (+6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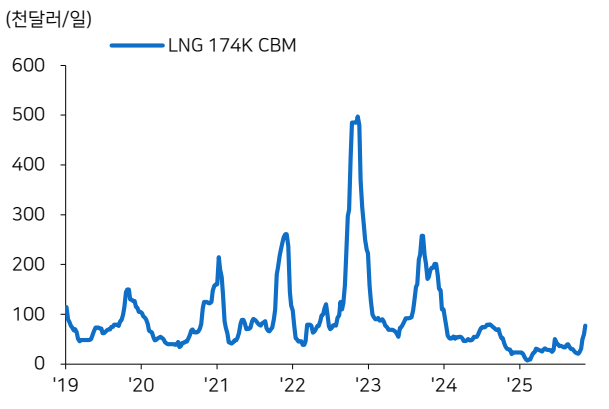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451.4p (-43.7p WoW)



VLCC Spot Rate 105.7WS (+16.7p WoW)



LNG Spot 운임 77.5천달러 (+17.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화오션, 지역 조선소·정비업체와 美 해군 함정 MRO 일감 나눠 — **연합뉴스**

한화오션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USNS Wally Schirra의 선행 정비 완료로 확보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산 · 경남 협력업체들과 함께 추가 MRO 작업을 재개했다고 전해짐. 이번 사업에는 '함정 MRO 클러스터 협의체' 소속 지역 전문업체들이 참여해 12월 중순까지 점검 · 수리 · 내부 리모델링을 수행한다고 보도됨. 한화오션은 지난 8~9월 영국, 캐나다 해군 함정의 MRO 사업도 수행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캐나다 · 폴란드 등 해외 함정 수출 및 MRO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낼 계획으로 알려짐. (https://buly.kr/3YEVSX5)

'한화오션 수주' 노르웨이발 LNG 선 4척 선주사 윤곽…5개사 경쟁 — **더구루**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Equinor가 발주할 신조 LNG 운반선의 용선 선주사가 5개사로 압축됐으며, 해당 선주사들은 BW LNG, Knutsen OAS Shipping, Maran Gas Maritime, Nippon Yusen Kaisha, Seapeak Maritime로 보도됨. Equinor가 최종 선주사를 확정하면 한화오션이 약 1조 3,800억원 규모의 신조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으로 전해짐. 해당 선박들은 2028년 인도돼 해머페스트 LNG 프로젝트의 기존 증기터빈선을 대체할 예정으로 알려짐. (https://buly.kr/ChpuTFE)

Syria signs deal to reboot gas production — **Upstream**

국영기업인 Syrian Petroleum Company가 ConocoPhillips와 Novaterra와 함께 내전으로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이후 시리아의 가스 생산 재가동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시리아 정부는 16년에 걸친 내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에너지 인프라 상황을 감안해 자국 내 가스 생산 증대와 전력 생산 지원을 약속했으며, 최근 아랍에미리트 기업 Dana Gas와의 재개발 합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짐. Abu Rabah 가스전이 핵심 사업으로 지목됐으며 이번 합의는 시리아 가스 인프라 재개발의 첫 단계로 알려짐. (https://buly.kr/7QNB2px)

Aramco announces deals worth more than $30 billion with US companies — **Upstream**

Saudi Aramco가 미국 기업들과 잠재 규모 300억달러 이상, 총 17건의 MOU 및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력에는 MidOcean Energy와 체결한 Lake Charles LNG 프로젝트 잠재 투자, 루이지애나 Commonwealth LNG 관련 계약과 LNG 및 가스 구매 가능성 등이 포함되며 SLB, Baker Hughes 등 주요 미국 공급사들과의 계약도 발표됐다고 전해짐. 이는 5월에 발표된 약 900억 달러 규모의 기존 협력에 추가되는 내용으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 확대 의지의 연장선이라고 알려짐. (https://buly.kr/9iH1muc)

LNG market set for 20 years of growth but faces demand uncertainty, Poten says — **TradeWinds**

Poten & Partners에 따르면 현재 북미가 LNG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간 212.6백만톤의 추가 LNG 공급이 가동되면서 현재 공급량이 거의 두 배가 될 전망으로 전해짐. 이에 2020년대 후반까지 공급과잉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며, 2027~2030년 기간에는 공급 초과와 카고 취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됨. 수요의 경우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새로운 축으로 203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LNG 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할 전망으로 알려짐. (https://buly.kr/APw3i59)

BOEM schedules another US Gulf oil and gas lease sale — **Upstream**

미국 해양에너지관리국(BOEM)이 2025년 3월 11일 멕시코만에서 약 8,000만 에이커 규모의 석유 · 가스 임대 입찰을 진행한다고 보도됨. 멕시코만 약 1억6,000만 에이커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8,000만 에이커가 대상이며, 분지 내 약 1만5,000개 미임대 블록이 포함된다고 알려짐. 해당 광구 임대는 OBBBA가 허용하는 최소 로열티율 12.5%로 제공되며, OBBBA는 BOEM이 2040년까지 총 30회의 임대 입찰(연 2회)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한편, 환경단체들은 12월 10일 예정된 별도 입찰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알려짐. (https://buly.kr/AaqohKP)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